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읽기 1년 1독을 시작하며 적응해 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매일 4장씩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사직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최소한 성경을 1번씩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가 모두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곳 시내산과 그 주변에서 1년을 머무르며 그 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시내 산 앞에 다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십계명은 단지 성도로서 외워두면 좋은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며 십계명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며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단순히 들어본 정도에 그치거나 아니면 외우기는 했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즉 대신게명(代神誡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즉 대인계명(代人誡命)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1번부터 4번까지의 대신계명은 그런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도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살지만 간혹 범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번부터 10번 계명까지의 대인 계명들은 사실은 죄의 원인이 아닌 죄의 열매 즉 죄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나머지 계명들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죄의 근본 원인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대인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 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한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범해도 괜찮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출19: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져버렸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 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근본 원인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대인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 왜 우리 죄의 근본 원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자 않아 범죄한 죄인들인지를 중요한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둘째는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즉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고 그 형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돈이나 지식, 권력,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쉽게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왕의 권위와 능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왕을 우습게 보며 왕에 대해 함부로 말합니다. 더 나아가 왕의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 하나님의 성호를 얕잡아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자신의 말이나 주장에 권위를 두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거기에 더해 더욱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폄훼와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폄훼와 도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없으신 분이시고 심판하실 능력도 없으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며 그래서 그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키고 따릅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받을 벌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왕의 인애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며 그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놓습니다. 그 왕이 나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왕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왕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 왕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안식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내가 쉼을 얻는데 왜 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어야 하는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쉼을 얻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택한 방법으로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범한 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원인이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인 인간을 향한 계명들은 그 죄의 결과로 범하게 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며, 바로 그 자체가 죄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